현불 논단

수치심이란 미덕

이미령
칼럼니스트



드라마 '보좌관'서 나오는 대사
"수치심, 정치하며 먼저 버렸다"
현실 다선 국회의원들이 떠올라

수치심 '부끄럽다' 두 한자 구성
자신이 바르지 못함 부끄러워해야

부처님 "수치심 끝까지 지닐 미덕"
불교에선 수치를 '慙愧'라고 말해
수치심 · 참괴심, 정치인에게 절실

언젠가 언론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분이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다녔다는 말을 듣자 내가 물었다. "정치학과에서는 뭘 가르쳐요?" "권력!"

기다렸다는 듯 대답이 척 나왔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해졌다. 정치란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던 동양고전의 문장들에 푹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내놓은 그 대답 속에는 권력 하나만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노회한 자들의 계략과 합종연횡의 비열함만이 느껴졌다.

며칠 전 TV드라마 '보좌관'을 보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만났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노리는 4선 국회의원 송희섭이 드라마 속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정치하면서 제일 먼저 버린 게 뭔 줄 알아? 수치심이야."

찌릿했다. 그건 분명 베테랑 연기자 김갑수의 연기가 워낙 출중해서 드라마가 드라마로 보이지 않고 뉴스를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인 탓도 있다. 하지만 딱히 누구라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다선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저들이 대놓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들의 속마음이 이 대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은 물론이요, 필요할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기라도 하며 적과도 손을 맞잡고, 필요 없을 때면 평생 동지와 보좌관도 단칼에 쳐내야 할 텐데, 그럴 때 인간이기에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 즉 수치심은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치심 같은 거야 진즉에 내던져야 하지 않겠는가.

'수치심(羞恥心)'은 '부끄러워할 수(羞)'와 '부끄러워할 치(恥)'. 부끄러워하다는 뜻의 글자 두 개를 함께 쓸 정도로, 사람이라면 자기가 바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의 선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니, 남의 선하지 못함도 즐거울 리가 없다. 이런 마음이 바로 '수오지심(羞惡之心)' 아니던가. 그런데 드라마 속의 국회의원은 보란 듯이 말했다. "정치를 하면서 내가 버린 것이 바로 수치심이다." 권력을 쟁취할 때까지는 사람다움을 포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수치심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뜻밖에도 부처님은 인간이 끝까지 지녀야 할 미덕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수치심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보았을 때 자기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참, hirī)과, 남을 대할 때 남 보기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괴, ottappa)이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부끄러워할 참(慚)'과 역시 '부끄러워할 괴(愧)' 두 글자를 묶어서, 불교에서는 '참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끄러움은 믿음, 계행, 배움, 보시, 지혜와 함께 성자의 '일곱 가지 재산(칠성재)' 속에 들어간다.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사람이 스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이웃과 세상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런 떳떳함에 스스로 행복해짐은 물론이요, 세상도 그 덕을 입게 되니 모두에게 참 좋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요 참괴심이다. 설마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이 수치심을 버렸을까마는, 드라마 속 작중인물의 저 말이 자꾸 맘에 걸린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법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는, 얼토당토 않는 우스갯소리가 상식인 듯 통하는 입법부에서, 그 많은 영감님들이 수치심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재산으로 여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챙겨가는 저들의 세비가 덜 아까워질 텐데 말이다.

社說

문화재청 불통 행정 언제까지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화재청이 답습하는 모양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을 위촉하면서 조계종과 협의 없이 스님 문화재위원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조계종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실 불교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2017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에 무관심하고 관료조직에 안주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소통에 취약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조계종과 해당 사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불교계의 항의에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으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불교계는 각고의 노력 끝에 7개 산사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때도 조계종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컸지만 문화재청은 일반 언론 인터뷰에 나와 자신들의 치적을 알리는 데 바빴다.

문화재청은 이제 불교계의 항의에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비공식 접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의 보전 주체인 불교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자비나눔으로 백중 맞이하자

올해 백중(百中)은 오는 8월 15일이다. 이를 앞두고 전국 사찰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8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와 사찰들에서는 백중을 앞두고 백중 기도 입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선지식 법회 등 법공양을 비롯해 공승재 등도 열릴 계획이라고 한다.

백중은 많은 대중에게 공양하는 날이라 백중(百衆), 많은 음식을 공양해서 백종(百種), 안거가 끝나는 날이라 백종(百終)이라고 한다. 또 우란분재(盂蘭盆齋), 우란분회(盂蘭盆會), 우란분절(盂蘭盆節)로도 불린다.

우란은 산스크리트어 'Ullambana'로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라는 의미다. 아귀도에 떨어진 모친을 제도하기 위해 목련존자는 갖가지 음식을 담아 스님들을 공양했다. 이를 통해 승보에 대한 공양으로 어미니를 천도했던 목련존자의 효심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비를 실천했던 백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최근에는 보시와 공양으로 백중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 조계사는 6월 28일 백중 입재와 함께 조계종이 진행하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적극 동참하는 백만원력결집 보시바라밀을 시작했다.

서울 국제선센터는 승보공양 법회를 계획 중이다. 용인 법륜사는 자비도량참법기도로 백중기도에 입재했으며 8월 15일 회향 시까지 108배를 통한 참회기도가 진행된다. 회향일에는 수행정진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승법회가 함께 이뤄진다.

공덕을 베풀어 선망부모의 천도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효심에 이제는 나눔의 실천이 함께 이뤄지는 백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몇 해 전, 일곱 살이었던 아들이 바닷가재를 사온 적이 있었다. 그릇에 옮겨 놓으니 기포를 만들며 숨을 쉬었고, 손으로 잡기라도 할라치면 꼬리를 거세게 파닥거리며 버둥거렸다. 집게발은 1cm 너비의 빨간 고무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아들이 바닷가재를 사온 이유는 단순했다. '관찰하기 위해서' 였다.

바닷가재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아이다운 호기심이 전부였다. 그러나 바닷가재의 움직임이 약해지면서 아이의 관찰이나 관심이 시들해질 무렵이면 그 바닷가재는 내 차지가 되었다. 살아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지켜 본 그 너석을 수돗물로 헹구어 씻고 찜 솥 위에 올려놓은 뒤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것이 내 몫이 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나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생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나는 산골에서 자랐다. 집에서 직접 가축을 길렀고 그 가축 중에서 일부를 양식으로 취하기도 했다. 직접 키워 왔던 것들이기에 그것을 취할 때는 그것들을 향한 측은지심과 고마움은 각별했다. 내가 키우던 생명을 먹는다는 자각은 그 음식을 모든 이웃과 골고루 나눠 먹음으로써 그 생명의 가치를 최대로 높이려 노력했다.

그런데 요즘 나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음식은 어떠한가? 나는 내 앞에 놓인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거의 모른다. 나처럼 뜻하지 않게 살아 있는 것을 요리해 본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잡고, 죽이고, 다듬는 과정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준다. 말끔하게 손질되어 제품화되고 포장된 쇠고기나 생선에서 생명력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퍼덕거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의 과정은 모두 생략된 음식을 무감각하게 먹기가 쉽다. 바빠진 일상에서 인스턴트식품을 먹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미세하게 쪼개진 생명은 그저 포장지 속의 상품일 뿐이다.

사는 동안,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으며 살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오늘 내가 먹는 한 끼의 밥상에서 생명 존중과 지구 환경 보전의 덕목까지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채식이 좋다거나 하는 명제보다 모든 음식에 깃든 생명에 눈을 뜨는 감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감성이 살아나면 욕망에 의한 폭식과 과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그 가치를 최대화하는 일에도 관심이 갈 것이다. 나눔과 절제, 건강한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지구 환경 보전의 큰 그림 속에 자신의 좌표를 찍을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자문으로 시작하는 공양게송이 요구하는 자각도 그런 것이리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들과 함께 식탁 앞에 앉으면 수도 없이 해 온 이야기가 있다. "양배추야, 고마워. 내가 너를 먹고 지혜롭게 잘 살게." "생선아, 고마워!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줬으니 너 대신 지혜롭게 자라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게."

매 끼니마다 음식이 되기 전의 생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품 있는 식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